

특수건강검진 연구용역을 실무에 ————— 적용하다

글 서정민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사내기자



왼쪽부터 이주연, 조유미(선임과장 이상2명), 탁기홍(직업환경의학전문외), 고경자(파트장)

대구경북지역본부 건강진단팀에서 수행한 『남성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청각적 매체를 활용한 설명 방법이 폐활량 검사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과제를 현장에 접목하여 특수건강검진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게 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대구경북지역본부 건강진단팀(탁기홍 외 6명)은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모한 자체 연구용역에 응모하여 2020년 6월 9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검사방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적합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특히나 폐활량 검사의 경우 검사방법의 숙지 정도에 따라 검사 결과의 정확도 및 정밀도가 향상되기 때문에 수검자와 검사자의 의사소통이 중요함에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신뢰성 높은 검사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확한 검사방법 전달 및 신뢰성 높은 결과 도출을 통하여 근로자의 검진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설명 자료를 개발하게 되었다.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코로나19로 봉착하게 된 어려움이 꽤 있었을 것 같다는 질문에 이주연 선임과장(건강진단팀)은 “폐활량 검사가 호흡기를 통한 검사여서 연구자 및 실험에 참여한 모집단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모집단을 구성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 2021년 12월 31일 연구과제를 완료하였다. 연구 과제를 통하여 만들어진 시청각 자료는 현재 원내 폐활량 검사 대기실에 설치된 스마트TV를 통해 검사 전 외국인 및 내국인 근로자들이 폐활량 검진 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여 검사방법을 사전에 숙지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연구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시청각 자료를 실제 업무에 적용 중인 고경자 파트장(건강진단팀 검사실)은 “검사 전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내원한 근로자들이 사전에 검사방법을 숙지할 수 있게 되어 예전에 비해 검사 시간 단축 및 신뢰성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쉬운 점은 현재 시청각 자료에 검사방법에 대한 텍스트는 제공되나 음성지원이 없어 검사방법 전달이 다소 미흡한 점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에 많은 어려움이 다소 해소된 것 같다”며 “해당 연구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여러 고충을 잊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탁기홍 연구책임자(직업환경의학전문)는 “자체 연구용역 참여에 있어 단순히 연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과제선정에서부터 노력하였으며, 그동안 연구를 통해 도출하고자 했던 결과물을 이제 실무에 적용하게 되어 소기의 목표는 달성하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과제 수행과정에서 겪은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 속에서도 다 함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동료 연구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66

검사 전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내원한 근로자들이 사전에 검사방법을 숙지할 수 있게 되어 예전에 비해 검사 시간 단축 및 신뢰성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99

